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부모의 과잉간섭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습무동기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an Elementary School Senior Parental Excessive Interference on Internet Addiction: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Amotivation

유계환

국립목포대학교 교육학과

Kae Hwan Yoo(espero33@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부모의 과잉간섭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습무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329명을 대상으로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인터넷 중독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과잉간섭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과잉간섭은 학습무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은 학습무동기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를 통해 학습무동기가 과잉간섭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서 간접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과잉간섭 | 학습무동기 | 인터넷 중독 | 초등학교 고학년 | 매개효과 |

Abstract

This study confirms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amotivation in the effect of an elementary school senior parental excessive interference on Internet addiction. To this end, 329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fifth and sixth grade were analyzed by collecting data on parental excessive interference, learning amotivation and Internet addic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static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xcessive interference, learning amotivation, and Internet addiction. Second, parental excessive interfer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Third, parental excessive interfer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amotivation, and the learning amotivation affecte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Through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learning amotivation has an indirect mediated effect on the effect of parental excessive interference on Internet addi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preventing Internet addi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discussed.

■ keyword : | Excessive Interference | Learning Amotivation | Internet Addiction | Elementary School Senior Students | Mediating Effect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상생활 안에서 IoT를 기반으로 한 편리함이 점차적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인터넷 안에서의 많은 정보와 지식이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인터넷을 고려하지 않은 편리함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편리한 인터넷의 순기능과 더불어 인터넷의 역기능과 관련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터넷 중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어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 [1]를 보면, 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2016년 인터넷 과의존이 115,243명에서 2017년 129,966명, 2018년 140,421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과의존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6년 28,738명, 45,000명, 41,505명이 2018년 43,238명, 54,561명, 42,622명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하여 급격히 높은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혼란스럽게 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2]. 또한 현실에서의 좌절감은 인터넷 안에서의 허구적인 자기실현의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더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한다[3]. 이러한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집중하여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터넷 중독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높은 것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 허남숙(2006)은 어린 시절에 인터넷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과 역기능적인 요소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4]. 본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찾고자 한 이유는, 이 시기는 급격한 성적, 신체적 변화의 경험과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기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확실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관련된 역기능적인 문

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만성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5][6].

인터넷 중독이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통제력의 상실로 부적응적인 인터넷 사용을 지속하는 상태로[7], 수면 부족이나 체력 저하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와 우울이나 불안, 강박과 충동성, 주의집중력, 사고력 및 판단력의 저하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생리적 의존성과 내성 및 금단 증상이 동반되어 학업은 물론 사회적 손상이 유발되고 일상생활에서의 장애가 초래된다[7-9]. 이러한 인터넷의 중독의 증상으로 는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내성 및 금단 등을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을 수 있다[5].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혼동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와 일탈행동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2], 우울, 충동성, 공격성 및 자기 효능감의 저하와 대인관계에서의 불안감 고조 등의 부적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Deci & Ryan(2002)이 제시한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른 동기의 한 유형인 학습무동기는 학습에 있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학습동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12],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좋은 성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가치부족), 학교생활이나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흥미부족), 자신의 능력이 낮거나 부조하여 학습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능력부족), 학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특성(노력부족)을 보인다[13][14]. 즉 학습무동기의 상태는 학습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에 대한 의미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신에 대한 통제가 결여된 상태로 인과소재 역시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15].

과잉간섭이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정적인 측면으로 과도한 개입과 감압, 거부, 제한이나 감독 등 자녀의 자율성을 방해하며, 과도하게 통제하여 심리적인 통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15], 학교적응, 학업 및 진로, 또래관계의 곤란, 스트레스 유발 및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6-18].

초등학생 고학년의 시기는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에[19], 이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과잉간섭, 과잉기대, 방임과 같은 비지지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주며 [17], 과잉간섭을 하였을 경우에도 학습무동기의 변인인 능력부족, 가치부족, 흥미부족, 노력부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5][20][21]. 한편 부모의 간섭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거나 거부적 또는 비난과 처벌을 자주 가하는 양육태도일 때, 그리고 통제적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22][23].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잉간섭을 할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24]. 한편 학습무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기에 학습무동기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은 학습무동기의 하위변인인 능력부족, 가치부족, 흥미부족, 노력부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13].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주는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부모교육 및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의 개선 및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인터넷 중독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과잉간섭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학습무동기는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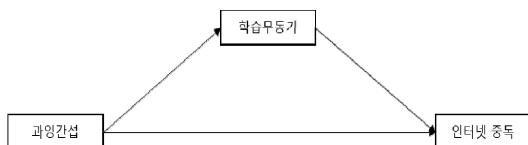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부모의 과잉간섭이 학습무동기를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군집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군집표본 추출 방법은 모집단에서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몇 개의 군집을 선택해 조사하는 방식으로[25], 초등학교 5, 6학년 전체를 조사하는 대신에 전라북도 I시에 소재한 초등학생들을 군집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에 전라북도 I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제의 제반 사항을 설명을 하였다. 특히 부모의 과잉간섭에 관한 설문은 가정의 형태와 관계없이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서 느끼는 과잉간섭의 정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명하였다. 해당 학교 5, 6학년 중 설문의 응답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건넨 후 일주일 뒤에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부모의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인터넷 중독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중 미응답 문항과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27부를 제외하고, 총 32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 학생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학생은 163명(49.5%), 여학생은 166명(50.5%)이다. 학년 간 분포는 초등학교 5학년이 150명(45.6%), 6학년이 179명(54.4%)명이다.

2. 측정도구

2.1 부모의 과잉간섭 척도

본 연구에서는 허묘연(2004)이 개발, 유계환(2017)이 사용한 척도 중 부모의 과잉통제의 척도를 과잉간섭 척도로 사용하였다[17][26].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과잉간섭을 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유계환(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 과잉통제(간섭)의 신뢰도 계수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과잉간섭의 신뢰도 계수는 .85이다. 유계환

(2017)의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신뢰도와 같게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2 학습무동기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무동기 척도는 Legault, Green-Demers, & Pelletier(2006)가 개발, 유계환(201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17][27].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무동기는 '가치부족', '능력부족', '흥미부족', '노력부족'의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무동기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유계환(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습무동기의 신뢰도 계수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의 학습무동기의 신뢰도 계수는 .93이다. 유계환(2017)의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신뢰도와 같게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3 인터넷 중독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08)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용 도구를 사용하였다[5].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장애', '가상대인관계 지향성', '금단', '내성'의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08)의 인터넷 중독의 신뢰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인터넷 중독의 신뢰도는 .80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낮은 신뢰도가 나왔으나, 연구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상 분포성을 확인하여, Kline(2015)가 제시한 기준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28]. 부모의 과잉간섭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무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과잉간섭은 학습무동기($r=.27, p<.001$)와는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학습무동기의 하위변인인 가치부족, 능력부족, 흥미부족, 노력부족과는 유의한 상관($r=.20\sim.28, p<.001$)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중독과도 긍정적인 상관($r=.36, p<.001$)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금단, 내성과도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r=.24\sim.37, p<.001$)을 보이고 있다. 학습무동기는 하위변인인 가치부족, 능력부족, 흥미부족, 노력부족과는 유의한 상관($r=.80\sim.89, p<.001$)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중독과도 긍정적인 상관($r=.53, p<.001$)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금단, 내성과도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r=.39\sim.46, p<.001$)을 보이고 있다. 학습무동기의 하위변인인 가치부족은 다른 하위변인인 능력부족, 흥미부족, 노력부족과는 유의한 상관($r=.62\sim.70, p<.001$)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중독과도 긍정적인 상관($r=.41, p<.001$)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금단, 내성과도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r=.28\sim.38, p<.001$)을 보이고 있다. 학습무동기는 하위변인인 능력부족은 다른 하위변인인

흥미부족, 노력부족과는 유의한 상관($r=.56\sim.63$, $p<.001$)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중독과도 긍정적인 상관($r=.46$, $p<.001$)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금단, 내성과도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r=.32\sim.41$, $p<.001$)을 보이고 있다. 학습무동기는 하위변인인 능력부족은 흥미부족은 다른 하위변인인 노력부족($r=.75$, $p<.001$)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중독과도 긍정적인 상관($r=.43$, $p<.001$)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금단, 내성과도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r=.32\sim.39$, $p<.001$)을 보이고 있다. 학습무동기는 하위변인인 노력부족은 인터넷 중독과도 긍정적인 상관($r=.53$, $p<.001$)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금단, 내성과도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r=.39\sim.44$, $p<.001$)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금단, 내성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r=.77\sim.83$, $p<.001$)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는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금단, 내성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r=.46\sim.66$, $p<.001$)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중독의 하위변인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은 금단, 내성($r=.45\sim.52$, $p<.001$)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중독의 하위변인인 금단은 내성($r=.49$, $p<.001$)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왜도는 .15~.95, 첨도는 -.23~1.54로 Kline(2015)은 왜도의 절대값이 3.0,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정상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한다고 한 기준에 부합한다[28].

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 평가를 위한 주요 적합도 지수는 $\chi^2(df)=85.369(55)$, $p\text{-value}=.000$, $CMIN/DF=1.552$, $RMSEA=.041$, $CFI=.985$, $IFI=.985$, $TLI=.978$ 로 나타났다. 우종필(2012)은 CFI, IFI, TLI가 .9이상, RMSEA는 .05이하면 아주 괜찮은 적합도로 여긴다는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괜찮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29]. 또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의 검증을 통해 각 하위변인들이 동등한 수준의 변인들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종필(2012)은 평균 분산 추출값(AVE)이 .5 이상, 개념 신뢰도는 .7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29]. 각 관측변수들의 표준화 계수(β)값을 살펴보면, 과잉간섭은 .58~.78, 학습무동기는 .72~.87, 인터넷 중독은 .65~.77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C.R.>3.30으로 유의성을 만족하였다. 한편 모든 잠재변수의 AVE 값은 .5이상, 개념 신뢰도 값은 .7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개념 사이의 상관관계

표 1.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인터넷 중독의 상관관계

	1	2	2-1	2-2	2-3	2-4	3	3-1	3-2	3-3	3-4
1.	1										
2.	.27***	1									
2-1.	.28***	.87***	1								
2-2.	.25***	.80***	.62***	1							
2-3.	.20***	.89***	.70***	.56***	1						
2-4.	.21***	.88***	.66***	.63***	.75***	1					
3.	.36***	.53***	.41***	.46***	.43***	.53***	1				
3-1.	.24***	.45***	.38***	.38***	.35***	.44***	.81***	1			
3-2.	.37***	.40***	.31***	.36***	.32***	.39***	.77***	.46***	1		
3-3.	.26***	.46***	.35***	.41***	.39***	.44***	.77***	.47***	.52***	1	
3-4.	.26***	.39***	.28***	.32***	.32***	.42***	.83***	.66***	.45***	.49***	1
평균	2.10	1.93	1.80	1.68	2.13	2.09	1.97	1.94	1.79	1.87	2.26
표준편차	.73	.58	.68	.59	.74	.67	.47	.54	.62	.58	.65
왜도	.56	.67	.95	.94	.56	.40	.32	.24	.59	.50	.15
첨도	-.23	.72	.75	1.54	.08	.02	.27	-.07	.14	.35	-.16

1. 과잉간섭, 2. 학습무동기, 2-1. 가치부족, 2-2. 능력부족, 2-3. 흥미부족, 2-4. 노력부족, 3. 인터넷 중독 3-1. 일상생활장애, 3-2.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3-3. 금단, 3-4. 내성
* $p<.001$

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학습무동기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상관관계는 .62이며, 상관관계의 제곱은 .38이다. 학습무동기의 AVE는 .81이고, 인터넷 중독의 AVE는 .75로 두 잠재변수의 AVE값이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크기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한편 개념 신뢰도와 AVE 값이 기준치 이상이고, 개념 신뢰도 역시 .8이상으로 높게 나왔으므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관측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표 3].

표 2.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B	β	S.E.	C.R.	AVE	개념 신뢰도
과잉간섭 → 과잉간섭1	1.00	.58				
과잉간섭 → 과잉간섭2	1.47	.77	.15	10.08		
과잉간섭 → 과잉간섭3	1.38	.74	.14	9.79	.57	.87
과잉간섭 → 과잉간섭4	1.30	.77	.13	10.05		
과잉간섭 → 과잉간섭5	1.45	.78	.14	10.15		
학습무동기 → 가치부족	1.00	.80				
학습무동기 → 능력부족	.78	.72	.06	13.79	.81	.95
학습무동기 → 흥미부족	1.15	.85	.07	16.68		
학습무동기 → 노력부족	1.06	.87	.06	17.14		
인터넷 중독 → 일상생활 장애	1.00	.77				
인터넷 중독 → 가상대인 관계지향성	9.97	.65	.09	11.01	.75	.92
인터넷 중독 → 금단	.934	.67	.08	11.36		
인터넷 중독 → 내성	1.19	.76	.09	12.75		

표 3. 구성개념 사이의 상관관계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인터넷 중독
과잉간섭	1		
학습무동기	.30***	1	
인터넷 중독	.41***	.62***	1
개념 신뢰도	.87	.95	.92
AVE	.57	.81	.75

**p<.01

3. 연구모형의 검증

부모의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인터넷 중독의 변인들 사이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는 $\chi^2(df)=115.537(51)$ p-value=.000, CMIN/DF=2.265, RMSEA=.062, CFI=.964, IFI=.965, TLI=.95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및 경로계수는 [그림 2]와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과잉간섭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과잉간섭은 학습무동기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beta=.30$, $p<.001$)을 주고 있다. 학습무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beta=.56$, $p<.001$)을 주고 있다. 이는 학습무동기가 높은 학생은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부모의 과잉간섭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잉간섭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beta=.28$, $p<.0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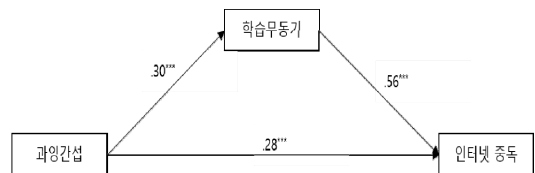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직접효과)

경로	B	β	S.E.	C.R.
과잉간섭 → 학습무동기	.33	.30	.07	4.53***
학습무동기 → 인터넷 중독	.37	.56	.05	7.40***
과잉간섭 → 인터넷 중독	.20	.28	.05	4.20***

**p<.01

한편 부모의 과잉간섭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습무동기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 절차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총효과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과잉간섭은 학

습무동기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beta=.30$, $p<.01$)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중독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beta=.28$, $p<.01$)과 간접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beta=.17$, $p<.01$)을 미치고 있다. 학습무동기는 인터넷 중독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beta=.56$, $p<.01$)을 미치고 있다.

표 5.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총효과 분석

경로	총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학습무동기	.30** (.30**, .000)	.000 (.000, .000)
인터넷 중독	.44** (.28**, .17**)	.56** (.56**, .000)

** $p<.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과잉간섭은 학습무동기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영향을 받은 학습무동기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간섭은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잉간섭이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학습무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과잉간섭, 학습무동기, 인터넷 중독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섭은 학습무동기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6][13][15][17]. 또한 학습무동기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13][30]. 이를 통해 부모의 과잉간섭과 학습무동기 그리고 인터넷 중독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의 과잉간섭은 인터넷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습무동기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영향을 받은 학습무동기는 인터넷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과잉간섭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영향에서 학습무동기는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섭이 증가할수록 학습무동기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17][21]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부모의 간섭이 증가할수록 인터넷에 중독된다는 선행연구들[13][30][31]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거나 권위적 또는 무관심한 경우에 인터넷 중독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32]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학습무동기가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끼치며, 하위변인인 집착과 강박적 사용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33]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처럼 학습무동기와 비슷한 학습된 무기력이 게임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1]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간접적일 경우에는 청소년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며, 현실에 회피로 가상세계에 대한 흥미유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에 집착을 보일 가능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무동기 상태인 청소년의 경우 더욱 인터넷을 과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로 부모의 과잉간섭과 학습무동기가 작용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의 과잉간섭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학습무동기 역시 인터넷 중독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과잉간섭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주어 인터넷 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학습무동기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매개역할을 밝힌 연구의 결과는 최근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개인적인 측면인 심리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등을 보는 것[32]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원인에 대한 한계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지역적인 한계와 학년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 급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34],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일반사용집단의 집단 분류가 다른 변인에 주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 역기능의 한 부분인 중독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인터넷 사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사용의 순기능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2018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2019.
- [2] 이경희, 이경숙, “초등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 가족기능성, 또래폭력 가해경험, 피해경험이 또래폭력 행위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425-436, 2017.
- [3] 이준기, 최용용,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1권, 제6호, pp.2085-2104, 2011.
- [4] 허남숙,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 교사태도 및 정신건강의 실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고도화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
- [6] 남소현, 김영희,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 내면적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pp.199-213, 2000.
- [7] 김정화, 이영호, “대학생 집단의 SNS 중독경향성과 인터넷 중독의 차이: 온라인 익명성, 자기에, 정신건강 및 대학생활 변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5권, 제10호 pp.27-523, 2018.
- [8] 임영옥, 서경현, “초기 청소년기의 자기주도성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5권, 제11호, pp.189-208, 2018.
- [9] 장성화, 박영진,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463-472, 2013.
- [10] 김혜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2호, pp.91-117, 2000.
- [11] 이희경,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 중독을 예측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4권, 제4호, pp.55-79, 2002.
- [12] E. L. Deci and R. M. Ryan,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2.
- [13] 유계환, 조경신, “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제10권, 제3호, pp.617-632, 2019.
- [14] 조은문, 이종연, “학습무동기신념이 높은 중학생을 위한 동기조절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9권, 제1호, pp.19-33, 2012.
- [15] 유계환, “초·중학생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학습무동기의 매개효과,” 사고개발, 제14권, 제3호, pp.43-64, 2018.
- [16] 김현주, 홍상환,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제26권, 제1호, pp.413-429, 2015.
- [17] 유계환,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18] 최미경,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32권, 제2호, pp.105-121, 2011.
- [19] K. W. Merrell and B. A. Gueldner, “The Guilford practical intervention in the schools serie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Promoting mental health and academic success,” New York, NY, US: The

Guilford Press, 2010.

[20] 김혜은, 김수정, 유계환, “중학생의 학습무동기에 영역 별 관련변인 탐색: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교사의 통제적 수업태도, 학습사의 영향 및 유능감과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31권, 제3호, pp.27-50, 2018.

[21] 김혜은, 유계환, “초·중·고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유능감,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간 및 성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30권, 제3호, pp.45-65, 2017.

[22] 이진희, “부모의 학대, 방임, 과잉간섭이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 게임 이용 빈도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5호, pp.330-342, 2018.

[23] 김나영, 심혜원,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9호, pp.125-147, 2012.

[24] 유계환, “중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28권, 제3호, pp.151-167, 2019.

[25] 노경섭,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통계분석*, 한빛아카데미, 2016.

[26]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2권, 제2호, pp.170-189, 2004.

[27] L. Legault, I. Green-Demers, and K. Peletier, “Why do high school students lack motivation in the classroom? Toward an understanding of academic amotivation and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26, No.2, pp.197-214, 2006.

[28] R. B. Kline,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5.

[29]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2012.

[30] 권순희, 권순녀, “부모의 양육태도, 학습된 무기력이 컴퓨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집, 제13권, 제4호, pp.59-69, 2008.

[31] 이정연, 최영선,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1권, 제4호, pp.335-346, 2002.

[32] 배주미, 조영미, 정혜연,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 위험

군 유형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 pp.233-259, 2013.

[32] 임은미, “중고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및 인터넷 중독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2호, pp.355-370, 2003.

[34] 정겨운, 정호진, 이인혜, “대인관계 불만족과 인터넷 게임 중독과의 관계에서 게임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2권, 제2호, pp.417-432, 2017.

저 자 소개

유 계 환(Kae-Hwan Yoo)

정희원



- 2017년 2월 : 국립목포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7년 8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 2017년 8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시간강사

〈관심분야〉 : 학습무동기, 부모양육, 교육심리